나주 고압선 선로 통과 주민 반대, 보상 소송 붙자

한전, 심야 주택침입 몰래공사

한전이 고압송전선로 공사 과정에서 민원을 우려해서 심야에 개인 주택에 몰래 침입, 작업을 강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은 주택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으며 집 주인은 이를 토대로 한전과 시공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한전은 "법적인 부분은 시공사가 책임질 일"이라며 회피하고 있다.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김장명(50·예술품 전시관 운영)씨 부부는 25일 "한전과 시공사 직원 3~4명이 지난 23일 새벽 1시부터 2시20분까지 집에 들어와 집을 통과하는 고압선로 연결 준비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07년부터 '154kV 나주~평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씨의 집 양쪽에 철탑을 세워두고도 그동안 반대에 부딪혀 고압선로를 잇지 못하고 있었다.

김씨 부부는 심야 작업 사실을 집안에 보관중인 미술품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CCTV로 확인했다. 또 마당에 놓아두었던 항아리 일부가 밤사이 파손된 것도 발견했다.

김씨는 곧바로 한전에 항의했지만 한전측은 태연하게 "방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며 일축했다.

김씨 부부는 한전이 지상권 보상금으로 88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하자 지가하락 등을 감안한 특수감정을 의뢰해 2억원대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이었다.

김씨는 "한전이 낮에 작업할 경우 소송 중인 우리 부부의 반발을 예상해 잠든 시간을 이용해 몰래 작업을 했다"며 "한전과 시공사를 야간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했고,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인 한전이 사람이 잠든 사이 주거를 침입해 공사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며 "만일 잠자고 있는 천장 위에서 사고라도 발생해 우리 부부가 숨졌다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낮에 공사를 하면 김씨 부부가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것이어서 위에 보고를 하고 심야 공사를 강행하게 됐다"며 "법적인 책임은 시공사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김장명씨 집 CCTV화면.

순천만 찾은 흑두루미 25일 오후 순천시 대대동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주변 농지에서 흑두루미 50여마리가 날아 오르고 있다. 겨울철새인 흑두루미는 매년 10월말 순천만을 찾아 이듬해 3월까지 겨울을 보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불산단 원당중공업 또 인명사고

우레탄 받침대 파편에 70대 경비원 뇌사

지난달 31일 2명이 숨지고 9명이 크게 다친 폭발사고가 발생한 영암 대불산단 선박블럭제조업체에서 또 다시 안전 부주의가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 70대 경비원이 뇌사상태에 빠졌다.

25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9시3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원당중공업에서 크레인의 금속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매달려 있던 바지선이 우레탄 받침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 이모(74)씨가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원당중공업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원당중공업에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하청업체 민주이엔지 대표 김모(41)씨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촛불화재 희생자 가족에 '온정'

백양사 49재 열어 넋 위로
유족 치료비 지원 계획도

장성 백양사가 고흥 촛불 화재로 숨진 할머니와 외손자를 위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49재를 연다.

25일 백양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우 주지 스님과 수행자가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전기료를 내지 못해 촛불로 생활하다가 변을 당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첫 제사를 27일 오후 2시 가질 예정이다.

또 이후부터 1주일마다 제사를 지내 할머니와 손자의 넋을 위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백양사 측은 26일 오전 고흥군을 직접 방문해 병상에 누워있는 유족 주모(60)씨를 위로하고 사회복지 담당 직원을 만나 현실적인 지원책을 논의한다. 백양사는 주씨의 정신적 치료 방법과 함께 금전적인 지원 계획도 세우고 있다.

지난 21일 새벽 3시50분께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주씨의 주택에서 촛불로 인한 불이 나 주씨의 아내와 외손자가 숨졌다. 어렵게 생활하던 유가족들은 고인들의 장례를 장지없이 수목장으로 치렀다.

백양사는 지난 23일 선포한 '참사람 운동'을 계기로 이번 49재를 계획했다. 서옹 큰 스님이 주창한 '참사람 운동'은 현대문명이 빚은 다양한 문제와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것으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자는 뜻을 담고 있다.

진우 주지 스님은 "참사람운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나원참 〈8697〉 김종두

소리도 침몰 낚시 어선 헬기 등 동원 16명 구조

지난 24일 새벽 3시15분께 여수시 소리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침몰 중이던 낚시 어선 다나까1호(9.77t)에서 승객 16명이 여수해경에 안전하게 구조됐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7척과 헬기 1대, 항공기 1대, 해군 함정 1척 등을 동원해 새벽 5시40분께 승객 16명 전원을 구조했다. 사고 선박은 새벽 5시53분 완전히 침몰했다.

사고 당시 해역에는 북동풍이 초속 14~18m로 강하게 불고 파도가 2.5~3m로 이는 등 강한 조류와 바람, 어둠 때문에 해경은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 영장 청구

현직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 글 올려

서울동부지검에서 발생한 '성추문 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에 대해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여성 피의자 B(42)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돼 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전 검사는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본부는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 등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오후 긴급체포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일종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검사 집무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검사는 집무실 내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또 전 검사가 B씨에게 자신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토록 요구하고 모텔에서 성관계 때 착용했던 콘돔 등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소속으로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인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4일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전기료 체납 가정 전력 공급기간 연장 검토

한전, 약관 개정 추진

한국전력공사는 요금체납으로 전기공급을 제한당한 고흥의 가정에서 촛불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남도가 요청한 전기공급 약관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고흥의 전력제한 가정에서 촛불화재로 할머니와 외손자가 사망하자 한전이 요금체납자 가정에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약관을 개정해달라고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요구했다.

현재는 혹서기 3개월, 혹한기 3개월 동안 체납 가구에 전력을 정상 공급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제한된 수준의 전력만 공급한다. 전남도는 3개월 이상 요금을 내지 않은 가구 현황을 도에 정기적으로 통보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한전은 본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 중이며 27일에 전남도와 접촉해 실무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약관 개정 문제는 승인권을 보유한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전남도의 요청을 수용하는 쪽으로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같은 살인범 두번잡은 경찰

쌍나팔

○…15년 전 부인을 살해했던 50대 남성이 출소 후, 내연관계에 있던 주부를 살해했다가 15년 전에 붙잡힌 형사에게 또 다시 검거.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안모(58)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자신의 원룸에서 내연녀 A(여·51)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가 형사과 임정원 팀장에게 붙잡혔다는 것.

○…임 팀장은 "안씨가 전 부인을 살해하고 무등산 한 계곡에 시신을 유기했을 때에도 내 손으로 붙잡았는데 또 다른 살인 사건으로 다시 붙잡고 보니 썩 유쾌하지만은 않다"고 씁쓸한 표정.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2타경 5308	1	해남군 해남읍 구교2길42, 101동 7층 702호[공간아파트] 59.985㎡	아파트	75,000,000 75,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2타경 3463	1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300 724㎡[농지자격증명요]	전	12,700,300 12,700,3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300 건평18평 제시외 창고 등 52.1㎡	단독주택		
2012타경 4183	1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346-5 407㎡	대	43,771,500 43,771,5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수목포함
		동소 346-5 98.25㎡ 제시외 다용도실 등 5 3.5㎡[제시외건물상당부분타지상소재]	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2타경 5469	1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188-2 서흥하이빌 1동 2층 202호 118.35㎡	다세대	91,000,000 91,000,000	
[대지/임야/전답]					
2012타경 2422	2	해남군 해남읍 남천리 656 182㎡	전	7,018,200 7,018,200	일괄매각.농지자격증명요
		동소 657 436㎡	전		
		동소 658 496㎡	전		
	3	동소 672 1488㎡	답	12,648,000 12,648,000	농지자격증명요
2012타경 2989	1	해남군 화원면 인지리 711 367㎡	전	2,752,500 2,752,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712-1 453㎡[현황:일부대]	전	7,980,000 7,980,000	일괄매각.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713 79㎡[현황:전]	대		
2012타경 4183	2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180-1 274㎡	전	15,340,000 15,340,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80-3 493㎡	전		
2012타경 4183	3	동소 674 1911㎡	답	36,309,000 36,309,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4268	1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1907-1 3809.7㎡[윤진귀지분3809.7분의1977]	답	14,234,400 14,234,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해남군 옥천면 용동리 산250-7 83405㎡	임야	91,745,500 91,745,500	일부전
	3	해남군 송지면 우근리194-6 760㎡	전	45,322,800 45,322,8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3현황858㎡
		동소 194-8 2446㎡[현황:답2875㎡]	대		
		동소 194-9 658㎡[현황:답410㎡]	대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268-1 3359㎡	전		
	4	동소 1129-3 5372㎡	임야	8,595,200 8,595,200	
2012타경 4343	1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42-11 774㎡	전	10,836,000 10,83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298-6 800㎡	전	16,000,000 16,0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5148	1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127 367㎡[공유자이상임지분17분의2,이상신지분17분의2전부]	전	1,665,500 1,665,5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28 840㎡[목록1과지분내용동일]	전		
	2	동소 184 331㎡[목록1과지분내용동일]	대	662,150 662,150	
	3	동소 224 179㎡[목록1과지분내용동일]	대	336,800 336,800	
	4	동소 284 2301㎡[목록1과지분내용동일]	전	1,786,620 1,786,62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5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860 1088㎡[목록1과지분내용동일]	전	3,697,020 3,697,02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861 2255㎡[목록1과지분내용동일]	전		
2012타경 5872	1	완도군 생일면 유서리 산24 77157㎡[공유자김유순지분3분의1전부]	임야	11,059,170 11,059,170	
[기타]					
2012타경 4909	1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1087-4 513.00㎡ 세척실192.00㎡ 창고및관리사 1층100.05㎡ 2층66.24㎡ 제시외 세척실 등 58.8㎡	공장	192,590,610 192,590,610	제시외건물포함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2. 12. 10.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2. 12. 17.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권혁민